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44호 【루게 제 25022호】 주제 104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박봉주 동지, 최봉해 동지, 김양진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평양시에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데 대한 간곡한 말씀을 주시면서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같이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뜻깊은 당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되어 생산을 시작하였다.

부지면적이 1만 2,800여㎡이고 년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갖가지 강냉이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원료보장대책을 바로세우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 들데 대한 문제,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강냉이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이 되게 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만족하

생산능력이 1만t이며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가 실현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는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제품진렬실, 종합조종

실, 과학기술보급실, 실험분석실, 실내체육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데가 없는 멋쟁이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생산공정조종과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제작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식료

공업의 표준화된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첨단분석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고 엄격한 분석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강냉이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품질관리를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국수, 옥쌀, 과자, 빵, 단묵 등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강냉이가공품의 가지수도 다양하다고, 제품의 포장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는데 불수록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공장안에 실내체육장도 멋들어서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마음먹고 달라붙어 건설한것이 알린다고, 당의 주체적 식료공업정책과 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반영된 내용고 자랑할만 한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평양시당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서기 위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번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강냉이가공공장건설에서 자기들의

평양기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여 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합합대학의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맞고 영양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

들은 자기들의 일러에 찾아오시여 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귀중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류경건설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평양양로원의 설계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훌륭히 완성하였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실장 김학동, 연구사들인 김진성, 리해광, 리철준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의 첨단시설비영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 전문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청천강을 보배강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남포시교리병원 의사 권광성, 약방구역종합식당 노동자 최광화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물질문명의 지평을 이키지 않았다. 풍성고기 가공공장 실장 조신철, 청진철도국 노동자 신광철은 조국의 만년세대를 건

설자들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발전소건설을 힘껏 지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의 자욱이 새겨진 철령아래에 사파바다를 펼치는데 기여할 일념하고 돌격대에 탄원한 승리자동차변형연구소 노동자 김정선은 고산파수동장건설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당의 대규모공업생산기지건설구상을 받들고 덕천시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김순복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도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겨주어 그들을 로력적위훈으로 불러일으켰다. 대외건설지도국 산하단위 교원 조국성은 건설의 대면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찬 승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고산당의 전변을 안아오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과학기술전담을 전인과학기술인재회실현의 위대한 거점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할 한 마음으로 평천구역 북성1동 99인민반장 오현희는 옥성개발전투에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떨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평천구역 정평동 12인민반 유육순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과학기술전담건설에 많은 건설자재와 물자들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심사상을 실현으로 만들어갈 마음이고 경총지도국 산하단위 실장 전지혁, 약방구역 정백1동 10인민반 리정애는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옥성지역에서 힘입는 경제선동과 원호사업으로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모란봉제1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예성, 금성제1중학교 교원 신진, 경흥은하수식료공장 노동자 김수현도 전담건설에 공민적 향심을 바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끝없는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별가리아래권도련맹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별가리아래권도련맹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별가리아래권도련맹 부시장 포스파딘 디미트로브가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열어 참가한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단 단장

인 김정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물을 드리였다. 디미트로브가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열어 참가한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단 단장

인 김정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물을 드리였다. 디미트로브가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열어 참가한 우리 나라 태권도선수단 단장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자 타라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자 타라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 드 메자 타라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선군은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반제반미대전에서 변견연승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통해 남녘겨레는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한 통일문제연구소는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라고 견정하면서 자기의 글을 다음과 같이 썼다. 이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안사를 이키지 않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정벌한다는것이 바로 이북의 의지이고 조국의 출한 로기, 나무 한그루도 다치지 못

한다것이 이북의 신언이다. 이북은 막고대로 위대한 자주의 결정체이며 난공불락의 성세이다. 부산의 한 퇴직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은 총 한방 쓰지 않고 고도 자기의 막강한 위력과 존엄을 시위하는 특수한 비결을 가지고있다. 이북에는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있다. 선군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이겨내고 자제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가를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필승의 무기이다. 그 어떤 핍중에도 끄떡없이 선군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이북이야말로 필승불패의 강국이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의 한 연구

원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외국책동축에서 북은 자주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을 통해 우리는 선군정치가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의 정치임을 잘 알수 있다. 따라서 북에서 선군정치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남녘겨레는 가슴마다에 위대한 백두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선군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다는 신념을 깊이 새겨안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사회계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과 국익침해를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매일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를 찬양하고있다. 수리아 디미트로브대학 정치학부 강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대국의 앞길에 메아리치는 력사의 선언-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불멸의 령도자육을 옮기신 55돐을 맞으며

룡남산의 맹세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혁명업적

룡남산!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높이 솟아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룡남산마루
에 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업속
하신 력사의 맹세가 끝없이 메아리
치신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언 55돐의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뜻깊은 이날
을 맞은 온 나라 천만민이 열렬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충정의 맹세를
담아 부르는 위인칭송의 송가가 이 땅
우에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는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
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어주시고 생의 마지막순간
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주제 49(1960)년 9월 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룡남산에
오르시었다.

장장 수십성상의 혁명활동력사는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누리에 떨치시고 우리 조국의 국
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어 우리 인민
이 대대손손 부강번영할 만년담보
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
고있다.

실로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력사가
이 땅우에 뛰여오르다.

거창한 혁명년대의 무수한 낮과
밤을 지새우시며 불같은 열정과 끝
없는 사색, 탐구로 로동계급의 100
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
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는 크나
큰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의의 보물고을 비삼기 풍부
히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사상리론적재지와 업적을 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늘 크나큰 감동
에 넘쳐 격찬하곤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71
(1982)년의 탄생일에는 온종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주제 73
(1984)년 2월 16일에는
력사적인 로작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고귀한 지침을 안겨주시고 90년대
마지막 2월의 명절날은 군인들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이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하는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고, 바로 이런 날이
자신의 명절이라고 하시며 열렬한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쳐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끝없는 헌신으로 맞고보내
신 단단사연들, 세상에 알려졌듯도
알려지지 않은것이 더 많은것이 바
로 그이의 헌신의 세계일전대 그 바
다 많은 이야기들을 어 다 전할수 있
겠는가.

주제 98(2009)년의 탄생일에
도 미나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밤에는
문필가들을 부르시어 뜨거운 온정을
부어주시며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
었다. 밤이 깊어져서야 그들을 배웅하
시며 그이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
었다.

내가 또 현지지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 동무들이 나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는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찬 길을 걷는것이 나에게서 락으
로 됩니다. ...

이렇게 어버이장군님께서
는 탄생일만이 아닌 명절날들과 일요일
들이나 한평생을 하루와 같이 조국
과 혁명, 인민을 위해 바치시었으니
그이의 헌신과 로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다.

백송의 선군정지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
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결사수
호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업적이 룡남산의 맹세
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혁명업적
을 이루고 있다.

우리 장군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고걸으신 수천수만리의 헌신길이
아름답고 룡남산의 맹세를 실현할
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헤치고헤치
신 애국헌신의 강행군이었다.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 폭잠
보일대 대하여... 아전술, 아전술...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10여년세월 겨울
이던 단비술술만들을 일으키면서도 모
진 추위를 한몸으로 다 막아 인민들
에게 따뜻한 봄날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격정없는 피세김수
없다.

167만 4 610여리의 머나먼
길을 헤치시며 1만 4 290여개
의 단위들을 현지지도!

지구들째를 큰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머나먼 그 강행군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
을 위해 불굴의 정신
력으로 심장을 불태우
시며 전대미문의 역경
속에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
하시고 강성국가건설
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주시는 영웅사
사적인 행로이다.

《조선아 너를 빛
내리!》

진정 룡남산의
맹세를 지키시어
한평생 선군혁명업
리를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인민은 천만
년세월이 흐르는데
못 잊는다.

그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
하시었다.

나도 인간인것만
큼 힘이 들고 잠이
그리를 때가 많습

세계적 및 발사국, 핵보유국, 주제
철, 주제비로, 주제비날로, 세 세
산업혁명...
위대한 장군님께서 송고한 민족에
와 넓은 도량으로 펼쳐진 6.15통
일시대는 또 얼마나 벅찬것인가.

정녕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룡남산
마루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를
평생 간직하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주시
어 력사가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
하신 세계의 애국자이시며 선군조선
의 영원한 태양이시이다.

오늘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왕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
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는 더욱 빛나
게 실현되고있다.

오늘도 선군혁명천리길을 위업
없이 헤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
도 경도도 풍도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세계의 애국자의 모습을
비유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새겨가
시는 애국헌신의 자욱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 조선은 온 누리에
가 떨치시려는 애국의 의지가 빛발
치고있다.

비범한 령도로 혁명을 수호하시고
불같은 헌신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처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누리에 빛나는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창창한 앞날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반드시 빛나는 헌신로
펼쳐질것이며 조선은 온 누리에 더
욱 떨쳐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 인 선
사진 본사기자 김 진 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어 수령님의 위업
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것은 시대
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우리
의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
에 길이 빛내시어, 이것은 나의 드림
이신데도 그 지임보다도 오히려 열
렬하고도 숭고한 뜻을 담아 교시하시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시어 태양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시
크나큰 뜻을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아 천명하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시를 읊으셨는지 아니냐,
나는 다만 늘 가슴속깊이 간직하여
오던 심정을 뜻깊은 오늘 이 산정
에서 러놓았을뿐이라고 교시하시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시어 태양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시
크나큰 뜻을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아 천명하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시를 읊으셨는지 아니냐,
나는 다만 늘 가슴속깊이 간직하여
오던 심정을 뜻깊은 오늘 이 산정
에서 러놓았을뿐이라고 교시하시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
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를 지키시어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오신

아침해살이 룡남산마
루를 붉게 물들인다.
조선인민군 군위 서
울류경주제105땅크사
단에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
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맹세가 력사의 메아리
가 되어 온 강산에 울려
퍼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최초의 청년장군
으로서 력사의 새 장을
아르새기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
었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합
니다.》

에서 멀지 않은 교외
에 이른혁명사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병사생활을
하신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오늘도
뜨겁게 떠오른다.

선군혁명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조국의 배일을 그려보
시듯 병사생활을 면 허리에 한
손을 얹고 조국강산을 굽어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군사야영기간 우리 장군님의
병사생활은 그 누구도 지닐수
없었던 위대한 선군정치의
비범한 병사생활이었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생
활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었
이나 다름없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성장하시
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아직 병사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군사야영기간 병사생활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고 하시었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진 유행성이
들려온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젊어서 고
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고 했는데
함께하고 비결없는 청춘시절을
바쳐 찾아야 하는것이 병사
생활일이다. 백전포장에게도 잊
을수 없는 병사시절이 있고 무
적장군의 첫걸음도 병사생활로
부터 시작됩니다. 병사생활체
계가 없는 병사들을 잘 안수 없
고 병사대중을 모르코서는 군사
를 움직일수 없습니다. 병사들
을 잘 알고 그 생활을 못 잊는
군사평판이라야 전사들을 아끼
고 사랑할수 있으며 그들을 일
심일제의 강군으로 육성시킬수
있을것으로 불려오실수 있습

병사의 지혜와 용맹도
병사생활에서 움트고 장군의
어깨에 빛나는 금별도 병사
생활의 탐으로 빛어져야
합니다. ...

장군과 병사생활!
세상에는 명성없는 장군들이
적지 않다.

그들가운데는 병사복을 입고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사람도
있고 전사의 형제관을 자랑하
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력사에도 병
사생활을 스스로 원했거나 병사
생활자체에 큰 의의를 부여했던
위인은 있어본적이 없었다.

참으로 깊은 뜻이 안겨오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군사란 곧
병사대중이며 군사를 움직이
면 무엇보다도 병사대중을 알
고 그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
해야 한다는 투철한 애병정
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만
이 내놓으실수 있는 철학적
명언이었다.

군사야영소에서는 훈련을 앞
두고 대별정일이 진행되었다.
그때를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었다. 천출명왕의 병사생활
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장군님께서
혁명의 무기를 몸소 잡으시고
수수한 병사복차림으로 병사대
중속에 들어가시어 그들과 교박
을 같이 하시었다.

본사기자 김 철 희

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혁명
인재육성사업에서 지침으로 될
불멸의 대장을 마련해주시는 영광
의 나날이었고 대학의 모든 교
직원, 학생들을 당과 수령을 앞
고 조국과 인민을 아는 주체
의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함으로
있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들이
였다.

사연깊은 공장을 찾으시어

주제 55(1966)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양방직기계공장을 찾으시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산실
습을 하신 공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으시었다.

공기청정에 둘러서서 류달리
운기도록 한 기계앞에 멈춰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설비
내가 돌리던 26호선반이라
고, 일생동안 이 26호선반과
드러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렇게 놓고보면 나
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나는 기
계 1작업반의 당당한 선반공이
였다.

총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주제 85(1996)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4.25 문화 회관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원 50층을
맞으며 진행한 대학생예술소
공연을 보아주시었다.

공연을 보아주시고 대학의 책
입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만든
예술영화 《그는 대학생이었다》
를 화제에 올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
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난 조국
방정정시기 모용자, 농민이
다들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작 싸웠다고 하시며 어려운 전
쟁시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은 펜을 총으로 바꾸어잡고 전
선에 달려나가 당과 수령, 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
웠다고, 우리에게는 예술영화
《그는 대학생이었다》의 주인공
과 같은 대학생이 필요하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의 대
학생들이 세운 위훈을 돌이켜보
시며 우리 내세워주시 크나큰
믿음, 바로 여기에는 당과 수령
에 대한 총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랑
스러운 전통이 영원히 계승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선군령장의 병사생활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합
니다.》

에서 멀지 않은 교외
에 이른혁명사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병사생활을
하신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오늘도
뜨겁게 떠오른다.

선군혁명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조국의 배일을 그려보
시듯 병사생활을 면 허리에 한
손을 얹고 조국강산을 굽어

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군사야영기간 우리 장군님의
병사생활은 그 누구도 지닐수
없었던 위대한 선군정치의
비범한 병사생활이었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생
활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었
이나 다름없다.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성장하시
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아직 병사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군사야영기간 병사생활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고 하시었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진 유행성이
들려온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젊어서 고
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고 했는데
함께하고 비결없는 청춘시절을
바쳐 찾아야 하는것이 병사
생활일이다. 백전포장에게도 잊
을수 없는 병사시절이 있고 무
적장군의 첫걸음도 병사생활로
부터 시작됩니다. 병사생활체
계가 없는 병사들을 잘 안수 없
고 병사대중을 모르코서는 군사
를 움직일수 없습니다. 병사들
을 잘 알고 그 생활을 못 잊는
군사평판이라야 전사들을 아끼
고 사랑할수 있으며 그들을 일
심일제의 강군으로 육성시킬수
있을것으로 불려오실수 있습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목고재, 폭풍이, 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탐독하시고
리용하신 도서들각 도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학생책상과 결산

무엇 오면 세월이 흐르면 모
든것이 사라져가지만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룡남산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다
심하신 손길아래 참된 교육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활해
온 나날들이 어찌먼듯 생생히
떠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
주신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
로,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것은 우리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나는 90이 다 되어오도록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자의
삶을 빛내고있는것을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
의 강의를 위하여 주신 의견이
였다. 경제학이 실현을 앞세우

는 과학인데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한 강의의 견해를 듣지 못
한것이 유감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해들었을 때
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강
의에서 나의 약점을 단번에 깨
쳐내보셨기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기성의
리론에만 사로잡혀 현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철저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것은 사실이
였다.

모든것을 주체적관점에서
보고 대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
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강의를
올바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
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대의 나의 심정은 이루 헤
아릴수 없었다. 우리 대학에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목고재, 폭풍이, 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탐독하시고
리용하신 도서들각 도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학생책상과 결산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목고재, 폭풍이, 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탐독하시고
리용하신 도서들각 도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학생책상과 결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말 레 이 시 아 국 왕
알 술 판 알 무 파 씨 무 빌 라 히 무 히 부 디
무 안 주 알 하 지 아 브 들 할 림 무 아 드 잠 사 흐
이 브 니 알 마 르 홀 술 판 바 들 리 사 흐 페 하

나는 말레이시아국정정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과 말레이시아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번영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104(2015)년 8월 31일

비슈캐크
끼 르 기 즌 공 화 국 대 통 령
알 마 즌 베 크 아 팜 바 예 브 각 하

나는 끼르기즈공화국 국정정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번영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104(2015)년 8월 31일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목고재, 폭풍이, 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탐독하시고
리용하신 도서들각 도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학생책상과 결산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목고재, 폭풍이, 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탐독하시고
리용하신 도서들각 도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용하신 학생책상과 결산

북남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교전지까지 치달아왔던 조선반도의 극단적인 정세가 완화국면을 맞이하였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었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는 해소되었고 인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런 사태를 목격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문제가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북남고급급진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기가 마련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온 겨레는 운영적인 시각 화를 북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분선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는것이 우리의 정답이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것

으로만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 북과 남은 온 겨레의 기대와 요구대로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아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소되는것이 아니다. 북과 남은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의 재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북남사이의 합의를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북남합의를 성실히 지키지 않은데 있다. 북남합의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담긴 공동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북남합의의 리행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방도로서 중요하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량으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의지를 단호히 내세우고 화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 결과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이 여러차례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들은 옹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선에 림하여야 하며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북남관계개선에 저촉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다가가는 연재는 민족의 머리에 세난의 검은구름을 몰아올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대결정 책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대결소통은 절대로 쌍립될수 없다.

쌍대방에 대한 도발과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절대로 마련될수 없으며 대립과 반목만 심화될뿐이다. 그것이 정점에 달하면 중앙에는 북남사이에 전쟁밖에 일어날것이다. 이번 위기사태를 통해 온 겨레가 다시금 찾은 교훈도 바로 그것이다.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북남간의 군사적대결은 우리 민족 그 누구에게나 리 몹지 못하다. 어부지러를 얻는것은 침략적인 의세뿐이다.

조국강토가 두통장나고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불행과 고통속에 살고있는 지도 70년이 되었다.

우리 민족이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한다면 언제 가도 평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적합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살고 있는것만도 가습어만 일인데 통족리 비방중상하고 반목질시하는 대결시 태를 더욱 지속시키지는것은 역사와 후대들앞에 들어갈수 없는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위해 이번 위기사태를 화가 복이 되는

국제조약과 전쟁법규에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데 대한 문제가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적수공 원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살륙전 을 벌였다.

국제법을 유린한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법에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인륜적외약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 그 어느 나라나 잘못같이 살인행위는 가장 큰 악종인 범죄로 취급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에 한해서는 시효가 정해져있지 않다. 국제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살육전을 벌려 반 인륜적외약을 저지른 미국은 국제적인 인 권재판정에 나서서 옹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인범범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이 마치 《국제인권재판관》이라고 되는것처럼 해 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며 잊지 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꺼들며 소동을 꾸며주고있다.

가소롭고 썩편피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 목적은 다 른데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탈, 인권유린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자는 의도가 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아무리 갖은 오그람수를 다 써도 반인륜적외약에 대 한 국제법적처벌이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계기로 살아 관계개선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것은 통족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악 화된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고대하는 남조선민심의 반영이다.

오늘의 북남관계는 융만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것을 주장해왔으며 그를 위해 온갖 상의를 다하였다.

자주통일과 평화변명의 리정표이며 위황한 설계도인 백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통일로선과 정책 의 반영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모아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민족공 통의 번영을 이룩하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림장이다.

북과 남은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공통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것이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주미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 과 평화변명의 전성기를 활짝 열어제 기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허영민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제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는 총련 대표조선계6초급학교 새 교사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 학교는 조국해방직후인 주제34(1945)년 10월 에 개설된 국어강습소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새 교사 준공식날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제를 세워 조국애와 민족성을 심어주는데 주력하며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서는 총련 대표조선계6초급학교 새 교사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 학교는 조국해방직후인 주제34(1945)년 10월 에 개설된 국어강습소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이 학교의 전신인 해방직후의 국어강습소는 다음해인 1946년 10월 10일 개교된 국어강습소가 그 뿌리를 두고있다.

총련결성 60돐을 애국의 자랑스런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온 동포사회가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교건설을 70돐을 앞둔 조진훈적인 축복속에 새 교

사 준공을 선포하게 된 이 곳 동포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수천㎡의 부지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2층짜리 새 교실에는 최신 교육설비들이 꽉 들어차고 땀방울까지 맺어놓았다.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넓은 강당과 통구와 배구 등 여러 체육경기장을 진행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관을 새로 짓는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수 있도록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민족적특성을 살려 온통으로 꾸민 유치원교실들과 인공잔디를 깔아놓았다. 정성이 번득이는 새 교사를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시종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 자금이 들어갔을것인가. 이렇게 성취할수록 새 교사건설에 기울인 이 곳 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뜻깊은 준공식날 나 어린 학생들은 학교내에 정성껏 감나무를 심었다. 이 기념식수의 발기자는 총련 대표도 오오다지부의 학생수교수였다.

미국을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앉혀야 한다

얼마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가 미군 특수부대병사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과 알콜을 사용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의 한 민가에 뛰어들어 어린이와 녀성들을 포함한 16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한 베일치라는 미군병사도 알콜과 마약을 쓰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베일치는 원래부터 알콜 및 마약중독자 로 알려져있었다. 그런데 미당국자들은 이것을 뵈히 알면서도 그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였었다.

이때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콜 및 마약 중독자를 비롯한 인간살육죄를 내몰아 인권유린, 인간살육죄를 범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행위 의 사용 《반테로》와 《인권보조》를 위한것 이라고 정당화해왔다. 무고한 민간인살해 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병사들의 행위나 본의아닌 《실수》로 묘사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도 오그람수를 썼었다.

하지만 그뒤 서훈피리 술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국가적범죄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렇게 찍어 말해도 미국으로서의 할 말이 없게 되어 갔다. 세계도처에서 《반테로》를 표에 고고 감행한 미국의 민간인살육죄와 인권 유린행위들이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업연히 남아있다.

미국이 10여년동안이나 계속 벌이고 있는 《반테로전》은 말그대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량살육죄

행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육을 당하였다. 그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 2013년에만도 거의 3000명에 달한다. 이라크에서도 2003년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한 때로부터 5년동안에 120만 5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고 100만명이 실종되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살육죄 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미군살인마들은 맨날 그들이 다니던 어린이들을 목표로 삼고 직승기로 따라가며 기관포를 쏘아왔는가 하면 잡지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에게 미친듯이 총탄을 마구 퍼부어 순식간에 매죽음을 냈다.

미군병사들은 사람을 죽이는것을 말그 대로 하나의 도락으로 삼았다. 어떤 미군 병사들은 약 4000장이나 되는 살인장면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거리로 들고나기도 하였다.

미군의 인권유린, 민간인살육죄를 찍자면 풀이 없다.

미국은 《테로기저소양》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무인기로 미사일공격을 가하여 술한 민간인들을 죽이고있었다. 파키스탄에서만도 수백차례 달하는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수천명의 주민들이 생육을 당하였다.

군사적공격에 의한 민간인살육죄행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최대의 인권유린행위이다. 오죽하면 전 미국대통령 카리가 파키스탄 등에서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죽고있는것이 세계인전선인 10조와 30조에 대한 명백한 위안으로 된다고 하였겠는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주범이며 왕초이다.

적외 사회에 만연하고있는 일본 사회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일 자리 축감

관란도의 오락프로그램개발 업체인 로비오 회사가 8월 26일 경영형편의 악화를 구실로 일 자리 축감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28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하게 된다.

오염된 물 사용

미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약 200만명의 주민들이 유라늄 성분으로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라의 중수부 여러 주들에서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정수상수의 180배나 넘는 유라늄 오염수가 발견되었다 한다.

국제조약과 전쟁법규에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데 대한 문제가 법제화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적